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정보화” 세미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정보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16일(수)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최원태 교수는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통해 도서관정보화를 위한 콘텐츠 구축은 체험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의 공유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모델로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1994년부터 American Memory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NDLP :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과 캐나다의 ‘캐나다의 디지털 장서’(CDC : Canada’s Digital Collection)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Korean Memories를 제안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주관하고 있는 American Memory라는 국가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http://memory.loc.gov>)은 1990년대에 다양한 유형의 장서로부터 추출된 미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원본 자료를 수집하여 미국 전역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유형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하고 국가적 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현재 500만의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미국 전역에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1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의 디지털화, 검색시스템 구축, 협력체제의 운용 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저자의 지적소유권 보호, 무단 자료접근 방지 등과 같은 저작권 보호 장치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자의 저작권 신청서 제출 시스템 및 저작권 자

료의 기계가독형 보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의 디지털 장서(CDC)’ 프로젝트는 캐나다 산업성이 1996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캐나다 전역의 가치 있는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15~30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 멀티미디어 산업분야의 취업기회제공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기업, 학교, 지방정부, 기타 단체나 개인이 보유한 가치 있는 정보를 디지털화 할 경우, 산업성이 접수,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하여 필요한 인력 자원을 지원해 주는 형태이다. 이 프로젝트의 사이트(<http://collections.ic.gc.ca>)에는 현재 캐나다의 역사, 지리, 과학, 기술, 문화에 대한 375개의 웹 사이트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도서관, 국립기록보관소, 박물관 등의 소장유물에서부터 캐나다 작은 마을의 역사와 지역 특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최원태 교수는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콘텐츠의 구축은 체험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지식의 공유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식을 공유하려는 국민 개개인의 마음가짐,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지식 공유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디지털화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실용적인 평생학습체계 구축, 전략적 지식분야 선정 및 목표 지향적 개방형 지식관리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교육, 문화, 문화유산, 과학기술분야 등의 중점 분야 지식정보의 디지털화와 병행하여, 지식정보의 단순한 디지털화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명확한 전략목표를 가진 지식분야를 선정하고 관련지식을 체계적으로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대부분 사서, 아키비스트, 출판사 등과의 협력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기술, 구축 모델, 정책 등의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도서관 구축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귀중한 디지털 유산들이 보존되고 미래에도 계속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이원규 교수는 '도서관정보화 인프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도서관에 컴퓨터 기술이 도입되면서 디지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확장과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같은 도서관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통합도서관시스템 개발을 통한 각종 도서관 시스템과의 연계, 디지털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디지털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은 먼저 온라인 저작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온라인 저작물 관리 시스템은 온라인 저작물의 수입에서부터 보존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관리 시스템에 가져야 할 개략적인 주요 기능을 언급하였는데, 1) 전자출판을 통해 출판되는 자료와 단순히 인터넷 또는 전자책 형태로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또는 제작된 자료에 대하여 출판사에서 직접적으로 온라인 디지털 납본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기반 납본 시스템 구축, 2) 온라인 디지털 납본 자료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디지털 납본

업무 지원 시스템 개발, 3) 온라인 디지털 납본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및 서비스 체계 구축, 4)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보존용 자료 제작과 이의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전자도서관 시스템은 시스템 확장 및 개선 사업이 필요한데, 주요 사항들은 1) 데이터 및 시스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KOLIS-NET과의 완벽한 연동 및 활용체계 지원, 2) 국제표준인 Z39.5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합검색을 지원, 3)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의 목록 및 목차/초록, 그리고 원문 DB와 완벽한 상호연동 지원, 4) 저작권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사용자의 이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원문 저작권정보 관리기능 지원, 5) 원문정보 전송으로 인한 네트워크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문시스템 개발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서관 시스템들과의 연계 체제 구축방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는 각 도서관 정보화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보급하였던 도서관자동화 시스템인 KOLAS를 대체할 시스템(KOLAS II)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과 디지털 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 예정인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 사업 등의 사업이다. 두 번째는 주요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 구축과 이의 통합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전자도서관개발 사업으로 현재 각 도서관의 정보들을 통합 활용하기 위한 체계인 Z39.5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분산통합검색을 통해 각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목록 정보를 검색하

고 이 목록 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디지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IT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디지털 정보 통합 활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로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을 통한 목록정보의 공유 및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① 각 도서관의 목록작업과 상호대차 업무 등과 같은 자료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클라이언트를 공공도서관용 자료관리시스템인 KOLAS II에 통합, ② 국가자료공동목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 국민 정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에 상호대차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KOLAS II와 연계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종합목록과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자료 공동목록이 Z39.50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는 통합 검색 및 활용 환경 구축이라고 언급하였다.

디지털 도서관 운영·관리 관련 기술개발은 Agent 시스템, Z39.50 시스템, 분산통합검색, 목차 및 초록관리, 저작권 관리와 저작물 보호, 시소러스, 다국어 정보서비스, 자동색인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정보 유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 즉, 건물·시설·설비와 전담 조직의 제안도 주장하고 있는데, 도서관 공간시설로는 정보검색공간, 위성방송수신공간, 멀티미디어 정보 서비스 공간, 자료출력공간, 자료수장 및 보존 공간, 장비보존공간, 디지털정보 제작 및 보존 매체관리 작업 공간 등이 필요하며, 정보기술서비스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기획팀, 표준화팀, 교육·운영팀, 디지털매체자료운영팀, 자료구축팀, 시스템개발팀 등이 필요하며, 인력의 규모도 확대되어야 하며, 조직의 역할도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화 관련 조직은 도서관정보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구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보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지식기반사회의 정보 유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도서관장 회의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 도서관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28차연도 회장관 및 제3차 도서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서관장 회의에서는 세차례의 강연이 있었다. 첫 번째로 계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방

대욱 교수가 '21세기 정보기술과 대학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방대욱 교수는 가상공간(Cyber Space)의 특징을 일곱 가지 제시하였는데, 1) 컴퓨터와 통신망을 물리적 기반으로 하고, 유동성이 높으며, 비물질적, 비가시적, 접촉 불가능성, 확장 용이성, 가상적, 추상적, 논리적 공간, 2) 공간적 제약극복과 실시간 정보교환

가능성, 3)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범세계적 접속 가능성, 4) 정보검색의 자유와 통제성, 5) 양방향성과 거래 가능성, 6)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7) 아무것도 실재하지 않는 관념적 공간이므로 인간의 자아의식마저 유동적으로 만듦으로써 심리적 불안 초래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사이버 전자도서관에 연결시켰는데, 사이버 전자도서관에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전자책, 전자저널, 전자문서들을 이용자 뷰어를 통해 인터넷에서 대출하거나 복사하여 전달된다고 하였다. 전자책은 뷰어 또는 리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저널은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자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체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외 학술전자저널의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이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문서는 구조화된 문서 사용으로 XML을 들고, XML 문서의 출판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자도서관에 대한 추진전략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1) 전자도서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되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적용, 2) 기존의 소장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전자도서관화하는 사업과 특성화, 차별화 사업을 처음부터 병행하여야 하며, 3)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는 학교, 연구기관, 회사들과의 기술 및 내용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4) 현재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 정보사회로의 변화 및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5) 전자도서관의 설계 및 구축은 외부 용역에 의존하고, 향후 시스템의 운영 및 확장성을 위해 핵심기술은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해 네가지 제언을 하였는데, 1) 전자도서관 분산 운영으로 국가전자도서관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전자도서관 연합체를 구성하며, 대학별로 전문분야 또는 특성화 분야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며, 가상공간에서는 하나의 대학 전자도서관이 존재하도록 하며, 2)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교육정책 연구로 개발된 참고질의 시스템 활용이나 정보 제공 수준의 서비스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전환되도록 해야 하며, 3) 강의 콘텐츠, 강의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가상공간에서 제공하며, 4) 전자책 서비스를 대비한 도서관내 마인드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강연은 교양강좌로 울산대학교의 국어국문학부 양명학 교수의 '음양과 오행'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고, 세 번째 강연은 최현철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정보화시대의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이틀째에는 채규인 울산대학교 학술정보원 원장과 박준식 계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제는 '제2기 대학종합평가와 대학도서관'이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소속 도서관장 일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게 건의서를 보냈다. 건의서의 내용은, 현재 대학도서관 분야에서는 대학종합평가가 적절한 기여를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대학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목표의 부재,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지표와 척도, 낮은 비중, 미래지향성의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하여 전국 대학도서관들이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전체 대학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해 2001년 1월 제정한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을 대학도서관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항목의 설정, 양적, 질적 평가의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한 배점기준의 적용, 계량화를 통한 평가의 객관성 유지, 전자도

서관으로의 발전을 유도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하여 제2기 대학종합평가의 도서관 부문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채용해 줄 것과 전체 평가에서 도서관 부분의 비중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였다.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직무교육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회를 겸한 제6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서직무교육을 무주에 있는 티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은 ECO 송재술의 'N세대와 전문대학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이라는 제 1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송재술 씨는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힘과 힘의 주체 그리고 방향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쳐온 주된 힘과 이러한 힘의 근원들을 살펴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경계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대학 내부에서의 관료제적 요소에 의해 작용하는 힘,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힘들이 대학도서관의 변화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발휘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판단의 근거(힘의 주체와 방향)와 지향점에 대한 하나의 생각을 제시하여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 발표는 성남시중원문화정보센터의 김효숙 사서가 '전문대학도서관의 CD-ROM 딸림자료 관리 현황 : 전산학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도서관이나 관련기관들에서 CD-ROM 딸림자료와 관련하여

간단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지침에 따르고도 있지만 속출하는 예외들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규모 도서관이나 자료실이 미디어의 변화로 인한 딸림자료의 누적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효숙은 딸림자료 관련 질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딸림자료 관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딸림자료는 비도서자료의 책자형 딸림자료, 비도서형태 딸림자료, 책자형태 딸림자료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정리로는 비도서자료 및 딸림자료 MARC 입력방법 스텝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장비는 파손을 대비한 복사본 관리가 필요하며, 원자료와 케이스에 청구기호와 등록번호를 라벨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D-ROM이 있으니, 담당사서에게 문의하라"는 고무인을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케이스가 없는 경우 자체 제작, 전면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용에 있어서는 각실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마련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출은 원자료와 함께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딸림자료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며, 딸림자료 대출에 따른 저작권문제가 대두된다고 언급하였다.

제3주제 발표는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대표가 '컴퓨터와 네트워크 사회 -그래도 도서관을 찾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신기술에 대한 낙관, 즉 새로운 기술은 모두에게 개인의

필요와 기술에 맞게 재단된 형태로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개발은 더욱 빨라질 것이며 모든 국가의 사회 각 부문에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상은 상대적인 빈곤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연구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인권 존중의 사상, 이를 기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알권리의 신장과 정보접근의 신장을 공동체·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출발지점으로 삼고, 거기에 덧붙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보해석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사회의 지적 자원이 사회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제4주제 발표는 아주대학교 도서관의 김기문 사서가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역사회는 지방대학이 평생학습장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지방정부도 기업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하여 대학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화와 지방화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대학에 요구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 뿐만이 아닌, 대학의 적극적인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지역사회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대학이 실시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대학의 역할과 그동안 모기관에 요구에만 부응하던 대학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일고하여 보다 발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제언하였다. 지역사회 내 대학도서관의 역할 부분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특화자료 중심의 열람서비스 및 DB 구축, 지역 내 작은

도서관 지원, 정보검색 및 도서관 이용교육, 영화 상영을 언급하였고, 국내의 사례로 한국의 아주대학교, 미국의블룸스버그(Bloomsburg) 대학의 앤드루스도서관(Harvey A. Andruss Library), 일본오사카 시립대학 학술정보종합센터의 지역주민서비스(대출서비스)에 대해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봉사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하며, 많은 주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대학도서관의 역할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자료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정보 자료의 구축, 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거점, 정보의 평등한 접근권과 향유권의 제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제5주제 발표는 권지연(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문대학도서관과의 원문복사 상호대차 구축방법 및 활용'과 제6주제발표 '한국 학술정보의 원문서비스 - 한국 학술정보 DATABASE이용-'이 있었다.

각 주제발표 외에도 저녁시간에는 주제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주제토론에서는 '전문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정보교류사례발표'로 윤선경 4.19기념도서관 사서, '산학협동을 위한 전문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의 이환영 유한대학교 사서, '전문대학과 종합대학교 도서관의 정보교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이성배 국민대학교 사서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제1업무교류 소모임으로 도서관 사서 업무별 그룹 토론이 있었고, 제2업무교류업무 소모임으로 기증자료의 등록 및 폐기조건, 연간물제본에 대한 각 대학 사례 비교, 비도서 자산가치와 온라인저널의 구독조건에 관한 소모임, 제3업무교류 소모임으로 전문대학도서관의 실질

적인 참고봉사에 관한 소모임이 진행되었다. 도서관 현안 토의로 각 대학 도서관리 프로그램별 이용자 회의도 있었다. 또한 행사 전과 중간, 행

사 후에 행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여 이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④ ;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학술세미나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는 6월 29일(금)에서 6월 30일(토)까지 지리산프라자호텔에서 “정보 서비스 및 정보원 활용에 관한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곱 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성장모 메사추세츠주립대학 교수의 ‘미국의 과학기술정보관리 발전과 한국지식정보 연구원들의 e-mind 변화 전략’ 이었고, 두 번째는 정준민 전남대 교수의 ‘전자저널 유통구조’ 였다. 세 번째는 신원데이터네트의 이주현의 ‘Web Resource의 통합검색 및 단일화된 환경 구현과 Reference Linking Solution 구현’ 이었다. 네 번째는 한국지식웨어의 한주영의 ‘기술 문서 표준화를 위한 WYSIWYG XML 편집기의 응용’, 다섯 번째는 한국아이엔에스의 이주현의 ‘전자정보원 연계 및 통합검색 솔루션 구축 : KDB Linking System & KDB Meta Search’ 였다. 여섯 번째로는 KITIS정보 고석철의 ‘자관DB와 IHS 상용 DB와의 연동 운영 방안’, 일곱 번째는 페이퍼리스웍컨설팅의 김영도의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자원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관리 기술’ 이었다. 행사 이틀째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노경란, 고흥곤의 ‘학술지원 클릭 서비스’ 와 한국과학기술원의 손청기, 최효남의 ‘e-Gate 서비스 환경 및 특징’ 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표자였던 전남대

학교 정준민 교수는 전자저널을 크게 세 가지로 형태, 즉 일반 저널의 전자판으로 이미지 베이스의 전자저널, 텍스트 형태의 전자저널, Web 기반의 순수 전자저널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전자저널의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생산자), 학회, 벤더, 이용자(고객)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자는 저작의 문제(기술방식), 저작권의 문제, 보존의 문제(증빙자료),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회는 소유권의 문제, 유통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벤더의 입장에서는 유통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관리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용자(고객)의 입장에서는 유통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회계의 문제, 소유권의 문제, 인터페이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도서관의 입장, 벤더(출판사)의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도서관의 입장은 1) 컨소시엄 대상저널을 벤더입장이 아닌 도서관 입장에서 결정하고, 이용량이 높거나 인용률이 높은 저널을 컨소시엄으로 유도하며, 2) 컨소시엄 참여 도서관의 규모와 이용률에 따른 다양한 가격정책을 개발하며, 대상저널을 2차자료(색인, 초록지 등)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3) 기타 저널은 종량요금제로 유도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구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며, 가격대비 만

죽도를 수시로 조사하여 저널선택을 수시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벤더의 입장은 1) 컨소시엄 대상저널군을 전문화하고, 가격이 비싸지더라도 이용률과 인용률이 높은 저널을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며, 3) 종량요금제와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가격평가를 통해 win-win 전력을 세워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중

량요금제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서관 주도로 저널 정책을 세우고, 새로운 제도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과 병행하여 운영하며, 벤더들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서비스 개통기념 학술세미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장 최덕인)은 전국의 학계·연구계·산업계 각급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관장 이태억, <http://ndsl.or.kr>)을 구축하고 5월 16일 COEX에서 시스템 개통식과 함께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은 전국의 첨단연구자를 대상으로 해외학술저널 2만5천 종에 수록된 2천만건의 학술논문에 대한 통합검색 및 One-Click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국내의 과학기술정보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은 서비스 개통식 외에도 학술세미나가 열렸는데, 주제는 정보유통 환경변화와 전자도서관 기반기술의 최신 동향이었다. 총 다섯 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화여자대학교 최석두 교수의 '전자도서(e-book)의 새로운 유통방안과 도서관', 두 번째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성혁 교수의 '도서관 자료수집을 위한 e-marketplace 구축방안', 세 번째 주제발표는 ISI사의 이은경의 '기초과학기술분야 연구수준의 평가·분석 관련 정보서비스 제공전략', 네 번째 주제발표는 Elsevier Science사의 전용수의 'The Next

Generation ScienceDirect', 다섯 번째 주제발표는 KINS사 최영준의 'DOI 기반 도서관 전자정보원 연계시스템 구현'이었다.

이날 최석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출판업자가 전자도서를 도서관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이용료를 받은 방법으로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훑어보는 행위에 대하여, 훑어보기의 시간을 정하는 법, 앞에서부터 일정한 페이지까지로 정하는 법, 읽지 못하게 하는 법 등의 방안, 둘째, 일정량(가능한 한 소량)의 부수를 구입하거나 일정 액수를 지불하고 이용자 전체가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유통방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주장하였다. 1) 구입에서 전자도서의 구입개념을 카피로 보고, 서비스의 제공을 동시이용자 수를 카피의 수에 맞추는 방법으로, 10카피를 구입한 도서관은 1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며, 한 책의 열람을 한 사람의 이용자로 한정하면 된다고 언급하였다. 일정한 카피를 이용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추가 구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보겠다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중개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으며, 추가 구입은 동시이용자 수만을 그



만큼 늘리게 된다고 하였다.

2) 전자도서의 이용 시 일단 접속하여 독점권을 확보한 전자도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면 되고, 이것은 카피를 구입한다는 개념과 일체가 된다. 독점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며, 그 이전에 자진해서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카피와 대출의 개념을 전자도서의 유통에 도입하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대가를 받는 일회성 계약(얼마 이상의 대금을 지불하고 무제한 이용, 혹은 몇 카피 이상을 구입하고 무제한 이용 등)보다 전자도서의 유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시스템도 필요한데, 중개시스템은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된 시스템이어도 좋고 단위 도서관이 운용하고 있는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의 일부여도 좋다고 언급하였다.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경유하여 도서관서비스를 받게 되지만 이용자가 이 중개시스템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전자도서 출판업계에서는 책다운 전자도서를 발행해야하며, 파일형식도 적어도 텍스트, XML, PDF의 형태로 만들어야하며, 여러 가지 전자도서의 형식을 수용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통합 뷰어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Unicoded의 사용,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 만든 전자도서와 국내에서 만든 전자도서의 호환성, 현재에는 표현할 수 없는 문자의 표시 및 안내방법 등을 협의하여 통일해야하며, 전자도서 출판업계에서 필요 문자의 폰트를 개발함으로써 폰트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 폰트를 공동 뷰어에 이식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출판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그 중 “새로운 책”, 즉 저작권이 유효한 것을 중심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동시에 “오래된 책”, 즉 저작권 시효가 끝난 책, 이미 팔릴 대로 팔린 책 혹은 절판자료 등을 전자도서로 만들어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⑥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학술발표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는 6월 29일(금) 오후 3시부터 6월 30일(토) 오전 12시까지 강남대학교 우원관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 도서관 그리고 콘텐츠”를 주제로 한 하계학술발표회를 가졌다. 첫 번째는 “디지털 시대 도서관 콘텐츠 문제 - 왜 다시 책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 6월 2일 출범식을 가진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을 소개하면서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모자란 한국사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공도서관은 정보시대의 인프라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

화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50년이 넘도록 “도서관 없는 나라, 책 없는 도서관”이라는 문화빈곤국의 현실을 방치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디지털 시대 도서관장서의 중요성, 도서관 장서의 역할,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디지털시대 도서관 장서의 중요성에서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시설보다는 도서관이 어떤 내용(콘텐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한국출판연구소가 1999년 조사한 국민들의 독서실태조사 결과에서 도서관에 대한

불만족 이유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장서량 부족, 신간부족이었던 사례를 언급하였다.

도서관 장서의 역할은 국민들의 독서활동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문화산업의 핵심인 출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요소, 국민들의 문화복지의 적극적 확보의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디지털 시대에서도 여전히 도서관에 책이 필요한 이유 중 한가지로 저작권 문제를 언급했는데, 최근 저작권의 강화로 인해 실제 이를 이용하는데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디지털자료가 가지는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보존의 역할과 가치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 도서관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도서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재정과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언급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유능하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서들이 서비스의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콘텐츠 확충에

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족한 예산으로 도서관 콘텐츠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특색 있는 장서구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간행물, 정기간행물 등의 확보, 외국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증자료 채록 등의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시대가 지식과 정보를 핵심적 자원으로 요구할 때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잊혀졌던 도서관의 기능을 부각시켜야하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책의 가치를 회복하여 책을 도서관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서 그 시작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최재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터넷 웹 자원에서의 메타태그 활용도에 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세 번째 주제발표는 강남대학교 유양근 교수가 '학교교육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 모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새로운 학교교육에 적합한 학교도서관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⑦ ; 한국기록관리학회 등,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 활용에 관한 학술세미나**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관리협의회와 한국정보관리학회는 OCLC와 지식관리와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6월 22일(금)부터 6월 23일(토)까지 연세대학교 위당관(제2인문관)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지식관리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및 현황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정보원 기술에 있어 메타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다루었다.

총 아홉 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지식경영과 메타데이터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인 OCLC 연구소의 에릭 줄(Erik Jul) 연구소장은

'지식경영의 개요', '지식경영의 응용사례', '메타데이터 개괄', 'OCLC CORC (Cooperative Online Resource Catalog) 서비스 전개' 등의 총 다섯 분야에 걸쳐 주제발표를 하였고, OCLC 연구소의 석좌교수인 화웨이 리(Hwa-Wei Lee) 박사는 '지식경영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국내에서는 (주)오름정보의 심경부장이 '과학기술종합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및 현황', 동덕여대 김성희 교수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 포스코경영연구소의 최희운 실장이 '프로세스 기반 지식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현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먼저 에릭 절 연구소장은 지식경영의 개요에서는 도서관 관장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직면하는 전략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선정된 세 가지 주요 이슈는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재정기반구조 및 기금, 인적자원 및 직원 재교육이었다. 또한 지식경영을 3가지 의미로 정의하였는데, 1) 지식을 체계적이고 명시적이며, 신중하게 구축, 갱신하고, 응용하여 기업의 지식관련 효율성과 지식자산으로부터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 2)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명시적인 통제와 관리를 의미하는 것, 3) 기업의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하고, 수집하여, 평가하며, 검색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발전시키는 분야라고 하였다. 도서관 지식경영의 목표는 지식전문가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지식경영에 있어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은 지식자원의 소비자, 공급자, 생산자를 연계시키고, 지식전문가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자관의 지식경영책임을 떠맡고, 전문가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지속적인 연구의 데이터베이스 생성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리 박사는 지식경영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 가운데 정보와 지식의 관리는 오랫동안 도서관의 주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사서, 기록관리사, 정보전문가들은 정보와 지식의 파악, 분석, 선정, 조직, 선별, 재가공, 유통 및 활용과 같은 기능에 전문가가 되도록 훈련받았다고 언급하였다. 지식자원관리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1) 도서관의 사명과 책임 안에서 인쇄자원에서 전자/

디지털 자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전략 개발로 소유에서 접근으로 전환, '경우에 따라서'에서 '적시'에로의 전환, 2) 이용자 요구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네트워크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수서 정책 개발, 내부 및 외부 자원 모두 통합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열람목록 개발, 3) 명시적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암묵적 지식을 수용할 방법 개발, 명시적 지식 또는 암묵적 지식이거나, 현재 사이트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간에, 선택된 적합한 지식에 대한 모든 정보원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 것, 4) 많은 도서관들은 Knowledge space와 같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공간을 개발, 기관에서 수집한 다양한 문헌, 보고서, 회의록, 통계자료, 정책과 절차, 매뉴얼, 실습, 교육, 뉴스, 개인적 활동 등과 같은 자료들이 인트라넷을 통하여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며, 이들 몇몇 자료들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5) 막대한 양의 전문 지식들이 도서관 안팎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들은 파악되어야 하며 색인화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한다. 또한 각 도서관에 의하여 이러한 지식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리함으로써 보다 쉽게 검색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인력자원관리에 대해서도 네 가지로 언급하였는데, 1) 도서관 직원의 지식과 경험은 바로 도서관의 지적 자산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며 또한 공유되어야 한다. 지식과 전문성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는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 정책을 통한 장려, 2) 조직문화는 경영자의 강한 지도력과 헌신 그리고 전 직원들의 비전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배움의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모든 임직원에게 제공, 3) 도서관은 또한 지식과 경험이 선임자로부터 새로운 직원에게 전달되도록 장려, 4) 문서, 출판물, 강의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직원들을 포함하고 보상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며, 보다 우수한 직원을 보유하기 위하여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과 함께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 새로운 연구조사 및 연구

수행, 새로운 이론과 실습 개발, 현재와 미래의 보다 나은 지식전문가 육성 등을 주장하였다. 도서관은 모든 자원과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지식추구를 보다 용이하게,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의 주요 역할뿐만 아니라 사서, 기록 관리사, 또는 정보전문가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직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⑧ ; 부산도서관 연구회 세미나**

6월 8일(금) 13:30에 부산시민도서관에서 개최된 부산도서관연구회 세미나는 크게 특강, 초청강연, 사례발표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먼저 특강에는 허상도 부산중앙고등학교 교감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실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초청강연은 두 주제가 있었는데, 먼저 이호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의 “디지털 자료의 저작권(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와 처리)”라는 강연이 있었고, 이어 이천효 동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가 “디지털자료의 출판현황과 유통과정(21C 콘텐츠 시대에서 초록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첫 번째 초청강연자인 이호홍 책임연구원은 도서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와 이의 처리에 관한 고찰에 기본적 목적을 두고, 1) 저작물 이용의 기본에 관련된 저작권 사항, 2)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면책되는 저작권제한규정을 통칙적 분석, 3) 도서관 서비스에서 임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여 각론적 규명, 4) 문제되는 저작권 처리에 관한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 부문 그리고 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매우 대량적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저작물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도서관이 디지털화 작업을 통하여 정보의 중심센터를 지향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저작권 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처리함에는 전술한 센터와의 협력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긴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센터의 본격적 활동은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도서관 측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저작권 처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도서관이 지향하는 정보의 중심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정보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처리에 중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두 번째 초청강연자 이천효 교수는 콘텐츠를 “생산자로서의 전달자가 세계 속의 사물이나 사건을 인쇄매체나 전자매체에 의하여 소비자인 수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구체성과 명료성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1세기 지식경영사회에서는 콘텐츠를하면 초록이고, 초록하면 콘텐츠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전문 학술활동에 있어서는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초록이 필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1) 정보 이용자의 시간 부족, 2) 정보 이용자의 노력 부족, 3) 정보 이용자의 전문지식 부족, 4) 일상생활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확립, 5) 초록에 대한 보편적 요구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초록이란 독자를 1차 자료인 원자료에 연결해주는 결정적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가 과거처럼 인쇄자료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자료에도 기록되므로 이용자가 시간·노력·전문지식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록이란 매개를 거쳐서 원자료에의 접근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초록의 근원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초록의 적용 내지는 응용이 필요하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초록의 구체화, 현실화, 생활화가 절실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초청강연에 이은 사례발표 시간에는 김수미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최근 도서관계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중 하나인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현재 부산광역시립 중앙도서관 수정 분관의 전자정보실의 운영사례와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제점으로 디지털자료실에 관한 사용자들의 인식은 메일확인, 워드 편집 정도인 실정이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민간구축DB와 국가전자도서관 정보 검색서비스 이용은 극히 저조한 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용자 관리 측면에서도 인터넷의 음란사이트 서핑과 게임 및 채팅 규제 등에서 마찰을 빚기도 하고, 기자재 관리 측면에서는 PC의 잦은 O/S 프로그램의 훼손으로 인한 고장과 프로세서 관리 등의 어려움과, 마우스나 헤드폰 등 전산소모품의 원활한 교체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와 디지털 자료실에 걸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보다 향상된 전산기술 지원과 기자재 확충, 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의 재정부 등 꾸준 구입, 노후기자재의 신속한 교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충분한 예산지원과 담당사서의 전산화 마인드와 지속적 교육, 전산관리 노하우의 삼요소가 골고루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수정 분관뿐만 아니라, 디지털자료실이 갖추어야 할 디지털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서들의 인식 전환과 공부도 필요하며, 새로이 생산되는 매체인 전자책(eBook), 디지털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관리도 필요하며, 정보 이용자가 책 내용을 전송 받거나 출력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관리시스템이 서둘러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보안이나 전자 화폐 지불 시스템이 여전히 기술개발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디지털 자료실이 모든 도서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완벽한 정보서비스 시스템이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디지털 자료실이 정보와 지식이 점차 독점에서 공유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주요한 구실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